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네팔도 초겨울에 접어들어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 해졌습니다.

멋진 눈 덮힌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눈 덮힌 아름다운 산들을 바라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네팔은 우기철이 지난 네팔은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 감사함을 더 합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네팔에는 여러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미디어 관련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의 집이 불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특히 현지의 어려운 이웃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임시 정부가 내각을 꾸리고 있으나 다시 폭동과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사관의 공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힌두 국가인 네팔이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아가페 소식

네팔 아가페에서 자라난 이삭이는 한국에서 한동대학교에 다니며 학업과 교회 봉사에 열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감사한 소식입니다.



에스더와 영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얼마전 한국어 토픽(TOPIK)2급시험을 보았습니다. 고3 졸업하고 얼마전 한국어 토픽시험 2을 시험을 봤습니다. 에스더는 내년에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중입니다. 오빠가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에 같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이는 네팔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진이 수지는 학업에 충실하며 장래를 고민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홈스 탁구교실 소식

주님의 은혜가운데 홈스 탁구교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씩 경험하고 마음을 열어가고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이는 네팔 주니어 탁구선수로 활동하며 대학 진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2026년 1월2일-5일 인도 바도다라에서 열리는 WTT Youth Contender 대회에 네팔 대표로 혼합복식과 개인전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5월 양영자 선교사님께서 주최하는 국제 탁구대회에 참가할 네팔 주니어선수 선발전에서  
 흡스의 영이(여, 17)와 히말(남, 19)이 합격하여 한국방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회 후 약 2달 반  
 동안한국에서 추가 훈련을 받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팔 축제기간 동안 흡스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에 모두가 기  
 뻐하는 모습을 보며 공동체를 더욱 돌보고 주님의향기가 흘러가도록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또한, 흡스 탁구교실 여학생 두 명이 처음으로 학교대항 탁구대회에 출전해 여자부 3등을 수상했습니  
 다 시작이지만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홉스 탁구교실에서 2회 탁구토너먼트 대회가 열립니다. 작년에 150명 이상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참여해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올해도 참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정 소식

11월1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잠시 한국을 다녀오느라 아가페 소식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입

1. 네팔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화 물결이 일어나도록.
2.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현지인들 삶이 어려움속에서 지켜지도록.
3. 에스더가 한국대학 진학 준비를 잘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교로 인도해 주시도록.
4. 영이가 WTT탁구대회(2026.1.2-5)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출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5. 12월21일부터 열리는 2회 홉스 탁구 대회가 복음을 전하는 장이 되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지도록.
6. 아가페 사역을 함께 하는 현지 스태프들과 홉스 탁구코치가 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7. 네팔에서의 사역을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과 기도안에서 잘 감당하도록.
8. 한국에서 아가페 사역을 돕는 모든 지인들과 후원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26일

네팔에서 장언순 /고연희 선교사 올림